

朝鮮 燕山朝의 書籍文化에 관한 考察*

A Study on the Book Culture during the King Yeonsan Era
in the Joseon Dynasty

金 允 植 (Kim, Yoon-Sik)**

◁ 목 차 ▷

1. 序 論	4.1 士禍의 發生
2. 燕山朝의 時代的 背景	4.2 教育輕視
2.1 政治社會的 背景	4.3 言論 및 諺文의 彈壓
2.2 學術文化的 背景	5. 燕山朝의 書籍 編纂과 刊行
3. 燕山君의 性品과 學術活動	5.1 書籍編纂
3.1 燕山君의 性品	5.2 書籍刊行
3.2 燕山君의 學術活動	6. 結 論
4. 燕山君의 暴政	<참고문헌>

< 초 록 >

본 연구는 燕山朝의 서적문화를 연산군의 성품, 학술활동, 그리고 暴政 과 관련하여 고찰한 것이다. 연산군은 부왕인 성종의 안정된 정치와 성숙된 학술 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즉위하였다.

연산군은 성품이나 학식이 군왕으로서 부족한 편이었으나 학자들과 經史를 논하면서 君德涵養하는 학술활동에는 불성실하였다. 정치적으로는 戊午·甲子土禍를 일으켜 많은 학자를 살해하고 귀양 등을 보냄으로서 학술활동을 위축시켰으며, 교육을 경시하여 교육기관을 폐지하거나 연회장소로 사용하여 인재양성의 기능을 유명무실케 하였다. 또한 언론을 탄압하고, 언문사용을 금지케 하는 등 前例없는 폭정으로 成宗朝의 학풍은 사라지고 학술문화는 침체되고 퇴보되었다. 이러한 제반 사유로 인하여 연산조의 서적편찬과 간행 상황은 지극히 저조하였으나, 詩文을 좋아하는 연산군의 학문성향이 서적편찬과 간행에 반영되었다. 결과적으로 한 국가의 통치자의 학문성향이나 정치적 역량이 당대의 서적문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要語 : 조선, 연산군, 서적문화

* 이 논문은 2005년도 동덕여자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yskim@dongduk.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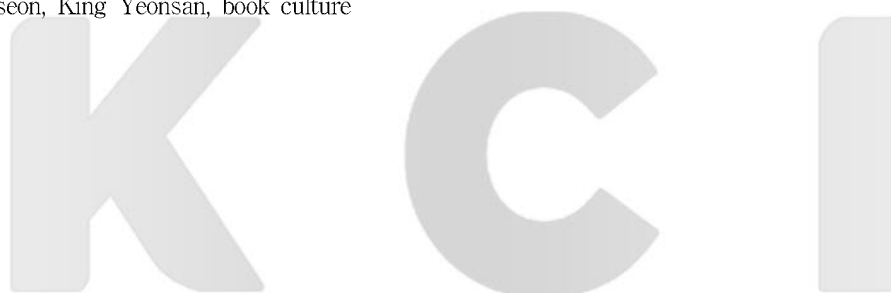
접수일: 2006년 8월 15일 최초심사일: 2006년 8월 17일 심사완료일: 2006년 9월 22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book culture during the King Yeonsan era in relation to his temperament, academic activities and tyranny. King Yeonsan succeeded to the throne from his father, King Seongjong, who maintain the political stability and academic maturity during his reign. As King Yeonsan, lacking in qualities and learning required for a king, was never committed to the cultivation of virtues by discussing the Confucian classics and history with royal scholars. By causing the Muo and Kapja calamities of savants to kill and exile many scholars, he repressed the academic activities. King Yeonsan, abolishing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using them as banquet halls, ignored the importance of education and neglected raising the best brains.

He also suppressed the freedom of speech and banned the use of Hangul, the Korean alphabet, which led to the erosion of academic tradition established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gjong. Under his unprecedented tyrannical rule, scholarly culture became very stagnant or rather moved backward. For these reasons, the compilation and publication of books were generally in a slump, however, King Yeonsan's inclination toward poetry and prose was reflected. In conclusion, the academic inclination and the political competence of the ruler of a nation greatly affected the book culture of the age.

Key words : Joseon, King Yeonsan, book culture



1. 序 論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사회적으로 안정되고 문화적으로 발전하여 번창했던 시대나 국가는 서적문화 역시 두드러지게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은 과거사를 통해 증명되었고, 또한 전제군주체제하에서 군주의 학문성향 및 학술문화에 대한 관심과 활동은 당대의 신료들은 물론 백성에게 많은 영향을 미쳐 문풍을 진작시키는데 일익을 하였음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조선조를 보더라도 전기에 世宗朝나 成宗朝 그리고 후기 英祖 正祖 시대에 많은 서적이 편찬되고 인쇄되었음은 당대가 다른 역조보다 비교적 정치사회적으로 안정되고 번창한 시기였으며, 군왕들이 학술문화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고 학술활동 또한 다른 왕들에 비하여 왕성하였다는 것은 이미 발표된 여러 연구 논저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조선조의 학술문화와 관련하여 서적편찬 및 간행의 관한 연구는 대부분 이와 같이 정치사회적으로 비교적 안정되고 학술문화가 발전된 역조를 중점으로 행하여졌음은 그만큼 연구할 대상이 상당량 있다는 점에서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이에 비해 조선조의 대표적인 暴君으로 간주되고 있는 燕山君朝의 서적문화에 대한 연구는 거의 행해지지 않은 것은 아마도 연구할 대상이 별로 없다는데 기인된 것으로 짐작된다. 물론 연산군조의 도서편찬 및 간행 실적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정치사회적 상황과 학술문화에 대한 군왕의 관심과 학술활동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보면 그 실적은 극히 저조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러한 예측 하에서 연산군조의 서적문화 즉 서적의 편찬 및 간행이 얼마나 저조하였으며, 그와 같은 결과는 연산군의 폭정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었는지 좀 더 명확히 살펴보고자 연구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燕山君日記」를 비롯하여 「成宗實錄」, 「中宗實錄」, 「燃藜室記述」 등의 역사 기록과 이미 발표된 각종의 연구 논저들을 참고하여, 먼저 연산조의 시대적 배경으로 성종조의 정치사회적 상황과 학술문화 사정을 간략히 살펴보고, 다음으로 연산군의 생애와 성품, 학술활동, 폭정의 실태, 그리고 서적 편간에 대하

여 고찰하였다.

2. 燕山朝의 時代的 背景

연산군이 태어난 시대는 부왕인 成宗의 통치시대이다. 그러므로 연산조의 시대적 배경으로 성종조의 정치 사회적 상황과 학술 문화적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연산조에 영향을 미친 성종조의 정치적 안정여부와 학문적 발전 및 서적편간 실적은 어떠하였는지 우선 살펴보고자 한다.

2.1 政治社會的 背景

成宗은 世祖의 長子인 懿敬世子(德宗)과 昭惠王后의 둘째 아들로 세조 3년(1457)에 태어나 일찍 아버지를 여위고 세조 7년(1461) 者山君으로 봉해졌다가 후에 者乙山君으로 改封되었다. 세조가 1468년에 사망하여 次子인 睿宗이 19세에 즉위하였으나 1년 2개월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곧이어 世祖妃인 貞熹大妃의 명으로 자을산군이 예종의 장자와 형(月山大君)을 제치고 13살이 되던 1469년에 즉위하였다.

성종 즉위 전후의 정치상황은 세조가 왕권강화와 부국강병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로 왕실의 위상이 높아지고 국방과 재정이 충실하였던 시기였다. 비록 李施愛亂과 南怡의 獄 등의 사건으로 內憂가 있었으나 수월하게 평정함으로써 안정된 정치사회를 유지하였다. 다만, 세조 사후 대부분 국사는 세조 즉위 때 공을 세운 申叔舟, 韓明澮 등의 勳臣들이 주도하면서 臣權이 점차 강화되고 세조가 이루어놓은 강력한 왕권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분위기였다.

성종은 나이가 어렸으므로 처음 7년간은 정희대비의 垂簾聽政하에 훈신들이 정국 운영을 주도해오다가 나이 20세가 되어 親政을 시작하였다. 성종은 세조의 지나친 탄압정치와 국방강화책으로 흠어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온건하고 합리

적인 유교정치의 필요성을 느꼈으므로 당시 신망이 높던 영남출신의 김종직과 그의 문인들을 대거 등용하여 정치체신은 물론 훈신세력을 견제하여 왕권을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성종의 지원하에 급성장한 이 유교적 이상주의자인 사림들은 言論 三司라고 하는 司諫院, 司憲府, 弘文館의 관원으로 등용되어 현실주의 노선을 지지하면서 기득권을 지키려는 勳臣, 戚臣들의 기존 정치세력을 비판하면서 道學政治를 실현하고자 했다. 특히 중심이 된 홍문관은 세조조의 藏書處로 설치되어 유명무실했던 기구였는데, 성종 9년(1478)에 새롭게 기구를 정비하여 經筵官, 知製敎, 史官, 試官 등의 역할에서 御使 및 言官 활동을 수행하는 기구로 확대 발전한 것이다.¹⁾ 홍문관은 새로 급제한자 가운데 성적이 우수한 인재를 弘文錄에 올려 참외관으로 임명하여 관원으로 우대하였다. 홍문록은 홍문관이 소속관원을 미리 선발하여 기록한 명단으로 인사에 있어서 왕이나 재상의 간섭을 배제하고 인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²⁾ 이 홍문관을 중심으로 정계에 진출한 사림세력이 언관으로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됨으로서 훈구세력과 대등한 위치에서 정치를 논하게 된 것이다.

물론 사림들과 훈신들은 상호 정치적 입장이 달랐으므로 적지 않은 갈등은 있었지만, 성종의 뛰어난 정치적 역량으로 양파 간에 충돌보다는 상호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하고 협력시켜 지속적인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면서 개국 후 추진되어 오던 문물정비 사업도 마무리하였다.³⁾

대외적으로는 평안도 함경도를 자주 침입하는 야인(여진족)을 정벌하고 남방의 왜인에 대해서는 三浦를 중심으로 무역을 증진하여 내치외교에 성공함으로써 세종조 이후 또다시 조선왕조의 태평성세를 이루었다. 다만 풍요로움 속에 사치풍조가 일어나 급제절목까지 만들어 공포하였음이 흠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1) 崔異敦, “16세기 士林의 進出과 政治構造의 變動過程,”(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1), 29-37.

2) 李恩淑, “甲子土禍의 原因에 대한 일고찰,”(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대학원), 5.

3) 한영우, 『우리역사』(서울: 경세원, 2002), 227.

2.2 學術文化的 背景

성종조는 정치 사회적으로 태평성세를 이루면서 학술 문화적으로도 많은 발전을 이루었던 시대이다. 그러한 결과는 호학적인 성품의 성종이 스스로 학문을 닦는데 근면한 점과 당대의 학술 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한 점과 연유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밝혀보면 다음과 같다.

성종은 어려서부터 현명하고 학문을 좋아했으며 즉위하여 곧바로 군왕의 치덕을 함양하기 위하여 경연을 열고 수학하였다. 하루에도 朝講 晝講 夕講 그리고 夜對까지 열여 가면서 강론을 하였다. 왕의 건강을 위해서 領事 韓明澮가 제사를 지낸 날에는 경연을 쉬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를 하여도 경연을 중지할 수 없다⁴⁾고 할 만큼 학술활동이 매우 근면하였다. 그 결과 성종은 25년간 재위하면서 朝講 3,708회, 晝講 2,288회, 夕講 2,112회, 夜對 457회 등 8천 여회에 이르는 엄청난 시간을 실시하여, 경연진강이 절정기를 이루었다.⁵⁾

경연에서 강의된 내용을 보면 「論語」, 「孟子」, 「中庸」, 「國朝寶鑑」, 「貞觀政要」, 「書經」, 「詩經」, 「春秋」, 「通鑑綱目」, 「高麗史」, 「大學」, 「名臣言行錄」, 「宋元節要」, 「周易」, 「禮記」, 「樂經」, 「易學啓蒙」, 「通鑑綱目續編」, 「大學衍義」, 「左氏春秋」, 「國語」, 「資治通鑑」, 「少微通鑑」, 「直解小學」, 「童子習」, 「史文瞻錄」, 「將鑑博議」, 「兵書」, 「近思錄」, 「孔子家語」, 「前漢書」, 「晉書」, 「性理大典」, 「史記」, 「文獻通考」, 「韻會序文」 등 30여종의 다양한 서적이 진강되었다 이와 같이 호문 성품의 성종은 경연을 통하여 經史에 밝고 性理學에 조예가 깊어지게 되었고 학자들과 자주 토론을 하면서 스스로 군덕 함양에 전력하는 모범을 보여줌으로서, 당대의 학풍을 일으키는데 큰 영향을 미치었다.

한편, 학문을 장려하고 진흥시키기 위하여 성종은 여러 정책을 세워 추진하였는데 그 주요한 것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4) 「成宗實錄」 권3, 1年 2월 乙卯.

5) 宋永日, “朝鮮 成宗朝 經筵進講 研究”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1998), 8-9

첫째, 홍문관을 확충하여 과거 세종조의 집현전의 기능을 담당하게 하여 세조 때 중단되었던 인재 양성을 다시 추진하였다.

둘째, 학자들에게 필요한 장서 확충하는 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종 6년(1475)에 성균관에 尊經閣을 짓고 경적을 소장하게 하였으며, 養賢庫를 충실히 하여 학문연구를 후원하였다. 동왕 15년(1484)에는 성균관 유생들에게 학업을 돕기 위하여 학전을 주었고, 동왕 20년(1489)년에는 지방 각 향교에 學田과 경사 시문의 서적을 나누어주어 官學을 진흥시켰다.⁶⁾

셋째, 세종조에 실시되던 사가독서제를 다시 실시하여 龍山豆毛浦에 讀書堂(일명 湖堂)을 설치하고⁷⁾ 젊은 학자들을 선발하여 휴가를 주어 학문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乙覽命刊의 방법을 택하여 글을 짓는 문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도 하였다.⁸⁾

이러한 학문 진흥책으로 젊은 유학자들이 대거 중앙관계에 진출하여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이른바 신진 사림학파의 기반이 조성되었음은 물론 후학들이 계속 이어짐으로써 조선전기에 가장 많은 인물을 배출된 시기로 세종조와 함께 성종조를 들고 있는 것이다. 성종은 이 신진학파와 훈구세력간의 학술활동도 정치와 마찬가지로 상호 협력 하에 활발하게 전개시켜 많은 서적을 편찬 간행해 내었다.

성종조의 이루어진 학술문화적 업적 중 도서편찬과 관련하여 주요한 것을 적어 보면, 먼저 「世祖實錄」과 「睿宗實錄」이 성종 2년(1471)과 3년에 편찬되었으며,⁹⁾ 동왕 5년(1474)에는 세조조에 착수하였던 「經國大典」의 교정이 완료되어 반포되었고¹⁰⁾ 「國朝五禮儀」도 이루어졌다. 성종 7년(1476)에 「三國史節要」를 盧思愼 등이 찬진하였고,¹¹⁾ 동왕 8년에는 尹子雲이 「蒙漢韻要」를 찬하였다.¹²⁾ 동왕

6) 「成宗實錄」 권173, 15년 12월 丙辰.

7) 「成宗實錄」 권277, 24년 5월 甲戌, 乙亥, 丙子.

8) 辛承云, “成宗朝의 文士養成과 文集編刊,”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4), 77.

9) 「成宗實錄」 권13, 2년 12월 壬午, 乙酉. 권18, 3년5월 乙巳, 丁未, 壬子.

10) 「成宗實錄」 권38, 5년 정월 戊子.

11) 「成宗實錄」 권74, 7년 12월 丙戌.

12) 「成宗實錄」 권84, 8년 9월 戊辰.

9년(1478)에 신라이후 조선 초기까지의 시문을 모아 문집으로 엮은 「東文選」을 徐居正 등이 편찬하였으며, 동왕 12년(1481)에는 「輿地勝覽」을 편찬한 후 이를 증수하여 18년(1487)에 김종직 등이 「東國輿地勝覽」을 완성하였다.¹³⁾ 동왕 15년(1484)에는 서거정 등이 「東國通鑑」을 편찬한 후 다음 해에 신편 「東國通鑑」을 찬진하였다.¹⁴⁾ 성종 20년(1489)에 尹壕 등이 「新撰救急簡易方」을 찬진하였고,¹⁵⁾ 동왕 23년에 「大典續錄」이 편찬되었으며,¹⁶⁾ 동왕 24년(1493)에는 유자광 등이 「樂學軌範」을 편찬하였다.¹⁷⁾ 이러한 성과는 조선왕조의 제반 문물제도를 집대성한 것으로서 조선왕조 오백년의 기틀을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성종조의 위에 언급한 편찬도서는 물론이거니와 그 외에도 교육에 필요한 도서를 수시로 간행하여 널리 보급하였다. 각종 도서를 간행하기 위하여 성종은 15년(1484)에 甲辰字 30여 만자를 주조하였으며¹⁸⁾ 동왕 24년에는 癸丑字를 주조하여 개국 초 태종 때부터 시작된 활자주조사업을 계승 발전시키었다. 이외에 도서 확충에 일환으로 중국에서 10여회에 걸쳐 30종에 가까운 도서가 입수되었는데, 주로 謝恩使, 正朝使, 聖節使 등 우리 사신들이 가져오거나, 중국 사신들이 들어올 때 가져온 것이다.¹⁹⁾

3. 燕山君의 生涯와 學術活動

3.1 燕山君의 生涯와 性品

연산군, 諱 滉은 성종의 맏아들이며, 어머니는 尹起畎의 딸로서 淑儀였다가

13) 「成宗實錄」 권200, 18년 2월 戊寅, 庚辰, 戊子, 辛卯.

14) 「成宗實錄」 권172, 15년 11월 丙申. 권181, 16년 7월 甲戌.

15) 「成宗實錄」 권228, 20년 5월 丁亥.

16) 「成宗實錄」 권268, 23년 7월 丙申.

17) 「樂學軌範」卷首 序.

18) 「成宗實錄」 권169, 15년 8월 을해.

19) 李昌旻, “成宗時代 出版活動에 관한 考察,” 『出版雜誌研究』 6(1998), 35-36.

계비가 되었으며 뒤에 폐비가 된 윤씨이었다.

성종 7(1476) 병신년에 출생하여 동 14년(1483) 계묘년에 8세로 세자에 책봉되었다. 세자로 있었던 시기는 전술한 바처럼 정치사회적으로 태평성세를 이루고 학술 문화적으로 번창한 시대였으므로 즉위 전 10여 년간은 정상적으로 書筵을 통하여 세자 수업을 받을 수 있었다. 1494년에 성종이 세상을 떠나 19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고, 재위 12년만인 1496년 병인년에 폐위되어 연산군으로 강봉되고 교동으로 내쫓겼으며 그 해 12월에 세상을 떠나니 31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친 것이다.

연산군에 대한 총평은 實錄에서 “어려서 학문을 좋아하지 않아 東宮에 소속된 관료들 중 공부하기를 勸戒하는 이가 있었는데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다. 즉위하여서는 궁내에서의 행실이 좋지 못했으나 밖에서는 이를 잘 몰랐으며, 晩년에는 주색에 빠지고 도리에 어긋나며 포박한 정치를 극도로 하여, 大臣·臺諫·侍從을 거의 다 誅殺하되 불로 지지고 가슴을 쪼개고 마디마디 끊고 백골을 부수어 바람에 날리는 형벌까지도 행하였다.”²⁰⁾고 적고 있다. 물론 이 내용은 연산군을 축출한 자들이 반정을 정당화 하기 위한 일방적인 편견일 수 있으나, 재위하여 戊午土禍와 甲子土禍를 일으켜 많은 학자들과 관료들은 물론 성종의 후궁과 그의 소생인 이복형제 등을 살해한 사실로 미루어 그의 성품이 매우 포악하였을 것으로 짐작케 한다.

「燃藜室記述」에서는 연산군의 포악한 성품을 나타내주는 몇 가지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하나는 연산군이 어렸을 때 부왕인 성종과 함께 정원을 거닐다 부왕이 기르는 사슴이 자신을 활았다고 발로 차니 성종이 “짐승이 사람을 따르는데 어찌 그리 잔인스러우냐”고 한 일이 있었는데, 뒤에 성종이 세상을 떠나자 왕위에 오른 연산군은 그 사슴을 쏘아 죽였다고 하였으며, 다른 한 가지는 연산군이 동궁시절 輔德으로 있던 趙之瑞가 동궁이 학문에 태만하자 책은 던지던서까지 엄하게 학문에 힘쓸 것을 가르친 것에 대하여 심중에 불만을 지니고

20) 「燕山君日記」總序. 少時不好學 東宮僚屬有勸戒者 深銜之 及即位, 宮中所行多不善 外庭猶未之知 晩年 荒悖淫縱 大肆虐政誅殺大臣 臺諫侍從 殆盡至有炮烙 斮胸 寸斬 碎骨 飄風之刑.

있다가 갑자년에 이르러 그를 죽이고 그 집을 적몰한 일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²¹⁾

또한 연산군이 즉위하여 朝野에서 모두 영명한 임금이라 일컬었으나 金宗直은 사임하고 還鄉하였으므로 고향사람이 그 이유를 물은 즉 “채 임금의 눈을 보나 같은 늙은 신하는 목숨 보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²²⁾ 한 바 있듯이 일찍이 김중직은 연산군의 얼굴에서 포악성을 느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연산군이 처음 왕위에 올라서는 자못 슬기롭고 총명한 임금으로 일컬었다는 기록도 있으며, 무오사화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정치도 잘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나,²³⁾ 대부분 장점보다는 이처럼 부정적이고 포악스러운 점들을 부각시키고 있다.

한 논문에서 연산군의 성품을 그의 詩想과 관련하여 “연산군은 激情的 성격자이고 法도와 전통적인 유교적인 宮中規律의 구속에서 벗어나려는 文學青年的 성격자이다. 생활감정도 華麗 奢侈 淨潔을 즐겼고 외향적인 率直 坦白이 시에 여실히 들어난다. 자연에 대한 鑑賞力도 銳敏했고 유머와 위트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연산군은 시대에의 反抗兒요, 법도에의 挑戰者요, 儒教倫理에의 否定者다.”²⁴⁾ 라고 하였고, 간관들이 상소한 글에서도 연산군은 사치하고 감성적이라 사사로운 은정이 많은 편이며, 어진 선비들과의 만남보다는 내시와 궁녀들과의 접촉이 많았고 대간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존심과 고집이 강했던 점을 엿볼 수 있다.

이상 제반 사정으로 미루어 연산군의 평가가 반정세력의 부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이라 하더라도 한나라의 군왕으로서의 그 성품이나 자질이 부족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은 재위기간에 무오·갑자 두 번에 사화를 일으켜 많은 인명을 처참하게 살육하고 음란 방탕하고 패륜적인 생활로 일찍 생을 마감하여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불행한 결과를 초래케 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21) 李肯翊 「燃藜室記述」 燕山朝故事本末 燕山君條.

22) 李肯翊 「燃藜室記述」 燕山朝故事本末 燕山君條.

23) 李肯翊 「燃藜室記述」 燕山朝故事本末 廢妃尹氏復位.

24) 李崇寧, “燕山君의 詩想의 考察” 『東方學志』 12(71,3), 255.

3.2 燕山君의 學術活動

성품이나 자질이 군왕으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스스로 학문을 연마하고 군덕을 함양하는 노력을 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연산군은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그의 학술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산군이 학문을 공식적으로 시작한 시기를 세자로 책봉된 후라고 한다면 조선 왕조에서 세자 교육을 제대로 받고 비교적 오랜 기간 왕위에 있었던 첫 번째 왕은 연산군이 될 것이다.²⁵⁾

연산은 성종 14년(1483) 8세로 세자에 책봉되어 19세로 왕위에 즉위하였으므로 11년간을 서연을 통하여 정상적인 세자교육을 받았다. 어렸을 때부터 유희만을 즐기고 학업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서연을 시작한 지 2년 동안 이미 「小學」, 「大學」, 「中庸」, 「論語」를 읽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⁶⁾ 초기의 세자 수업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9년이 지난 후에 경연에서 우승지 權景禧가 성종에게 아뢰기를 “세자께서 오로지 「논어」 「맹자」 등의 경서만을 읽기 때문에 급년에 이미 춘추가 17세인데도 아직도 문리를 해득하지 못 합니다. 청컨대 조강과 주장에 경서를 진강하고 석강에는 「十九史略」을 진강하되 賓客 및 서연관이 세자와 더불어 강론하면서 어려운 곳은 隱微한 말과 奧妙한 뜻까지도 모두 정밀히 해석하여, 세자로 하여금 이해하고 통하도록 하여야 합니다.”²⁷⁾ 하니 성종이 書筵官에게 그렇게 하도록 명하였다.

이상의 내용으로 보아 연산군은 서연관으로부터 조강 주장 석강으로 하루에 세 번에 걸쳐 주로 經書를 중심으로 수학하다가 후에는 史書도 함께 배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세자 책봉 후 7년 동안 수학한 후에도 문리가 트지 않았다는 점은 연산군이 어렸을 때부터 유희만 일삼고 학문에 전혀 마음이 없었는데 부왕의 훈계가 엄함을 두려워하여 마지못해 서연에 나올 따름이었다고 한 말²⁸⁾이

25) 문종, 단종, 예종이 세자로 책봉되어 교육을 받았으나 문종이 2년3개월 단종이 3년2개월 예종이 1년2개월로 재위기간이 모두 짧았다

26) 「成宗實錄」 권 186, 16년 12월 丙戌.

27) 「成宗實錄」 권 262, 23년 1월 庚子.

사실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학문에 대한 특별한 재능이나 의욕을 갖고 있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위한 후에 학술활동은 경연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재위기간에 경연과 관련된 내용을 실록 기사를 살펴보면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연산군은 즉위하여 부왕인 성종이 경연에 열성을 보인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즉위 초부터 경연이 잘 이루어지지 않자 홍문관이나 간관, 대신들이 경연을 촉구하는 건의를 올리는데 여러 가지 핑계로 개연을 하지 않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여러 사례 중 연산군 원년에 나타나는 기사만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²⁹⁾

- 4월 임신 弘文館과 領議政 盧思愼이 경연을 청하자, 針灸를 해야 한다고 하다.
- 4월 을해 司憲 李誼, 執義 金碑, 持平 崔溥 등이 경연을 청하자 허리 아래와 발이 시고 아파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다.
- 4월 신사 우의정 정팔이 경연을 청하자 灸瘡를 앓아 조리하고 싶다고 하다.
- 5월 경인 지평 최부가 경연을 청하자 뜬 곳이 아프고 발바닥이 아프다고 하다.
- 5월 기해 대간이 합사로 경연을 청하자 뜬 자리가 곪고 발이 아프다고 하다.
- 7월 경진 대간이 경연나아가기를 서계하다.
- 7월 을사 대간들이 합사하여 경연 나갈 것을 청하나, 더위가 물러가지 않아 못나간다 하다.
- 9월 병오 왕이 경연을 안 나가는 것은 발병으로 핑계되다.
- 10월 임자 대사헌 權景禧 등이 경연에 부지런할 것을 건의하다.

이처럼 즉위 초부터 간관들과 대신들이 성종의 예를 따라 경연을 열어 어진 신하를 접견하고 성학을 밝히기를 건의 하나, 매번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미루어 오다가 결국 원년 5월에 처음으로 경연에 나가게 된다.³⁰⁾ 그러나 두 번 나간 후 정지하게 되므로 다시 대간들이 경연에 나갈 것을 청하자 병과 더위를 이유로 미룬다.³¹⁾ 얼마 후 경연을 열기는 하지만 또 다시 중단되어 경연을 촉구하는 건의가 재차 올려지면 마지못해 경연이 열리는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8) 李肯翊 「燃藜室記述」 燕山朝故事本末 燕山君條.
 29) 경연을 청하기에 앞서 연산군 1년 1월 병오에 大司憲 李誼 등이 올린 時宜十 六事와 2월2일에 副提學 成世明 등이 올린 상소에서 경연의 중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30) 「燕山君日記」 권4, 1년 5월 癸卯.
 31) 「燕山君日記」 권4, 1년 5월 甲辰, 丁未.

갑자사화 이후에는 대신들과 맞서서 경연 불필요론을 주장하고³²⁾ 마침내는 경연을 권하는 자를 간신운운하게 되니³³⁾ 간관이나 대신들도 건의하는 것을 포기하고 연산군의 경연폐지론에 동조하기에 이른다.

연산군이 재위 12년 동안 실시한 회수는 <표 1>과 같이 총 회수는 500여회에 이르고 그 중 주장은 25회, 석강은 5회만 실시하였으며 갑자사화 이후는 경연을 폐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연에서 강독된 서적은 「通鑑綱目」과 「大學衍義」뿐이며, 강목은 조강에 하고 대학연의는 주장과 석강에 주로 하였으며 夜對는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³⁴⁾

이처럼 경연을 실시하는 과정이나 그 회수와 강독한 내용으로 보아 연산군은 君德涵養과 어진 선비와 政事를 논하기 위한 학술활동에 거의 관심이 없었고 불성실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1> 연산군의 경연 실시회수

월 \ 년	원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월		8(7/)	5	3		10	5		26	1
2월				8		2		5	26	3
3월				4					21	
4월		4		3(1/)	8		10	3	10	
5월	3			3	5	5	3	6	2	
6월			1			7				
7월			19							
8월	4(1/1)		11		11	2	12	6	8	
9월	5(1/1)	9	5(1/1)	3(1/)		5	4		1	
10월		2	6(1/1)	4	8(1/)	13	12	15	10(/1)	
11월	7		11	13	9(1/)	12	2	20	12(3/)	
12월	6(6/)	7	4	2	6(1/)	4		17	3	
계	25(8/2)	30(7/)	62(2/2)	43(2/)	47(3/)	60	48	72	120(3/1)	4

조·주·석강회수(주강/석강)

32) 「燕山君日記」 권55, 10년 8월 丁卯.

33) 「燕山君日記」 권57, 11년 2월 甲戌.

34) 姜泰訓.“朝鮮朝 經筵의 教育的 役割,”(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1991), 102.

다만, 연산군의 학문적인 사향으로 특이한 점은 經史에 대한 관심 보다는 詩文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작품 활동에도 열성을 보인 점이다. 연산군이 지은 시가 실록에 90여수 수록되어 있으며, 자작시를 신하에게 보여주고 製詩以進을 강요하거나 술과 꽃을 하사하면서 시를 짓도록 명하는 일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³⁵⁾ 인재를 취하는데도 경학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以詩取士를 주장하거나 시를 잘 짓는 신하를 총애할 정도로 시에 대한 지나친 편애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학적 학술활동은 聖學, 性理之學을 요구하는 당시 유교의 학풍과는 거리가 멀고, 군왕으로서 施政에 별 도움이 안 되는 학문 성향이었다.

이처럼 연산군의 학술활동은 당시 학자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것이 못되었고, 신료들의 학술활동을 장려하는 문흥정책도 미비하였으므로 당연히 학문 발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여한 바가 없었다. 오히려 다음 장에서 언급하는 暴惡한 정치로 인하여 성종조에 旺盛했던 학문풍토가 사라지고 퇴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4. 燕山君의 暴政

4.1 士禍의 發生

士禍는 조선조 중기에 조신 및 학계의 반목, 세력다툼 등으로 선비들이 화를 입은 사건으로 戊午·甲子·己卯·乙巳士禍가 대표적인데 그 중 두 번이 연산군조에 일어난 것이다. 두 사화에 대한 간략한 발생경위와 被禍者를 살펴보고자 한다.

4.1.1 戊午士禍

무오사화는 주지하고 있는 바처럼 연산군 4년(1498)에 金駟孫 등 신진사류가

35) 李崇寧, “燕山君의 詩想의 考察,” 『東方學志』 12(71,3), 255.

柳子光 등의 훈구파에 의하여 화를 입은 사건이다. 성종조부터 金宗直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해온 사림파와 종래의 별족인 훈구파간에 갈등과 반목이 그치지 않았는데, 마침 연산군 4년에 실록청을 설치하고 『성종실록』을 편찬할 때 김일손이 기초한 사초에 삽입된 김종직의 ‘弔義帝文’이라는 글로 인하여 사화의 발단이 되었다. 당시 당상관이었던 이극돈이 이를 보고 세조가 단종으로부터 왕위 찬탈을 비유한 것이라고 유자광을 통하여 연산군에게 알림으로써 김일손 등 그 일파의 죄악은 모두 김종직이 선동한 것이라 하여 이미 죽은 김종직을 剖棺斬屍하고 관련된 많은 선비들을 죽이거나 귀양을 보냈다. 被禍者들의 죄목과 형벌을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金駟孫, 權五福, 權景裕 는 조의제문을 사초에 기록한 죄로 능지처사하고, 李穆, 許磐 등은 간악한 봉당을 만들어 선왕을 誣錄 하였다 하여 處斬 하고, 같은 죄목으로 姜謙은 杖 100대에 가산을 적몰하고 먼 변방에 보내 終身으로 삼았으며, 表沿洙, 洪瀚, 鄭汝昌, 茂豊正摠 등은 亂言罪를 범했고 姜景叙, 李守恭, 鄭希良, 鄭承祖 등은 難言임을 알면서도 고하지 않았다하여 杖 100에 3천리 밖으로 귀양을 보내고, 李宗準, 崔溥, 李龜, 李胄, 金宏弼, 朴漢柱, 任熙載, 康伯珍, 李繼孟, 姜渾 등은 모두 종직의 門徒로서 봉당을 맺어 국정을 譏議하고 時事를 비방하였다 하여 杖 100에 처하고, 魚世謙, 李克敷, 柳洵, 尹孝孫, 金詮 등은 修史官으로 사초를 보고도 즉시 아뢰지 않았다 하여 罷職시키고, 洪貴達, 趙益貞, 許琛, 安琛 등은 左遷시켰다. 이외에도 成重淹, 曹偉 등도 연류되어 귀양에 처해졌다.

위와 같이 무오사화에 화를 당한 선비는 죄목에 따라 부관참시, 사형, 귀양 파직, 좌천 등으로 그 수가 40명에 이른다. 이들 중 사형당하거나 귀양간 선비들의 인적사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戊午士禍의 被禍者

姓名	號(字)	生沒年	士禍時 나이 ³⁶⁾	著書	士禍前 주요官職
金駟孫	濯纓	1464-1498	35	濯纓文集	司諫院獻納
權景裕	癡軒	? -1498	30代?		弘文館正字
權五福	腫軒	1467-1498	32	腫軒集, 腫軒詩集	弘文館校理

李穆	寒齋	1471-1498	28	李評事集	成均館典籍 永安道評事
許磐	(文炳)	? -1498	30代?		承文院副正字
姜謙	(謙之)	? -1504	30代?		司憲府掌令
表沿末	藍溪	1449-1498	50	藍溪文集	弘文館直提學 司諫院大司諫
鄭汝昌	一蠹	1450-1504	49	一蠹遺集, 庸學註疏 主客問答說, 進修雜著	侍講院設書 安陰縣監
洪澣	(蘊珍)	1451-1498	48		弘文館典翰 吏曹參議
李摠	西湖主人	? -1504	40代?		(茂豐副正)
李青	忘軒	? -1504	30代?		藝文館奉教 司諫院正言
姜景叙	草堂	1443-1510	56	草堂集	司諫院司諫 司憲府執義
李守恭	(仲平)	1464-1504	35		司憲府掌令 弘文館典翰
鄭希良	虛庵	1469 - ?	30	虛庵文集	藝文館待教
鄭承祖	(述而)	?			藝文館奉教
李宗準	慵齋, 慵軒 浮休子	? -1499	30代?	慵齋遺稿	司憲府持平 議政府舍人
崔溥	錦南	1454-1504	45	漂海錄	司憲府持平 司諫院司諫
李龜	再思堂	? -1504	30代?	金剛錄, 再思堂集	吏曹禮郎
金宏弼	寒暄堂	1454-1504	45	景賢錄, 家範, 寒暄堂集	刑曹佐郎
朴漢柱	迂拙齋	1459-1504	39	迂拙齋集	司諫院獻納
康伯珍	無名齋	? - 1504	40代?		司憲府掌令 司諫院司諫
任熙載	勿菴	1472-1504	27		承政院承旨
李繼孟	墨谷 墨巖	1458-1523	41		承政院左承旨
姜渾	木溪	1464-1519	35	木溪集	弘文館員
成重淹	晴湖	1471-1501	28		弘文館著作 弘文館博士
曹偉	梅溪	1454-1503	45	梅溪集	成均館大司成 同知中樞府事

36) 生年未詳인 경우 生員試, 式年試, 別試 등의 급제시기를 참고하여 30代?, 40代? 로 추정하여 적은 것이다.

<표 2>에서 보듯이 피화자들의 대부분이 대간이나 홍문관 출신이고 나이는 20대에서 50대에 걸쳐있으나 주로 3,40대였으며, 반 이상이 문집을 남겨놓은 학자들이었다. 화를 당하지 않았다면, 향후 언관으로서 활발한 활동은 물론 당대의 학풍을 선도할 학자로서 장래가 촉망한 선비들이 안타깝게 죽거나 귀양을 가게 된 것이다. 특히 이 무오사화로 인하여 성종조부터 득세를 한 김종직의 사림이 거의 몰락하고 말았다. 물론 이 사화가 신진사류와 훈구 세력간에 다툼으로 선왕 때부터 불거져 이때에 터져버린 참극이라고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림들의 분방한 언론활동과 학자들을 경원하였던 연산군의 부덕하고 포악한 정치의 첫 번째 산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오사화 이후에 유림들은 사기를 잃어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눈치만 살필 뿐이었으며, 학문하는 곳은 수개월 동안 글 읽는 소리가 끊어지고 부형들도 경계하기를 학문은 과거나 불만하면 그만이지 더 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으니³⁷⁾ 당시 학문에 대한 기피의식이 얼마나 만연되었는지 충분히 짐작케 한다. 아울러 수십 명의 신진사류들이 사형, 유배, 파직됨으로써 정계 진출이 막히고 그들의 학문적인 맥도 끊어짐으로서 성종조의 성숙된 학술문화가 계승 발전하지 못하고 퇴보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4.1.2 甲子土禍

첫 번째 사화가 지난 후 6년이 된 연산군 10년(1504) 갑자년에 또다시 사화가 발생하였다. 갑자사화는 성종 12년(1479)에 연산군의 생모인 윤비가 폐비 후 사사된 자세한 사항을 모르고 있던 연산군에게 任士洪이 그 연유가 성종의 후궁 嚴淑儀와 鄭淑儀의 모함에 의한 것임을 밀고 함으로써 발단이 된 것이다.

임사홍의 말을 듣고 대노한 연산군이 兩淑儀와 그 소생인 安陽君, 鳳安君 등을 죽이고 그 난행을 꾸짖은 인수대비를 머리로 받아 얼마 뒤에 세상을 떠나게 하였다. 또 이때 연산군이 생모 윤비를 왕후로 추숭하고 성종묘에 배사코자하니

37) 李肯翊, 「燃藜室記述」 권6, 燕山君故事本末 戊午土禍條.

대부분 廷臣들은 이의가 없었으나, 다만 응교 權達手와 李荇이 이에 반대하였다. 이에 권달수는 죽이고 이행은 유배하는 한편 연산군은 이것으로 분노를 참지 못하여 윤비 廢死 당시 그 일에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못한 朝臣들을 추죄하여 尹弼尙, 李克均, 李世佐, 權柱, 成俊, 김광필, 李胄, 등 수십인을 죽이고, 韓致亨, 韓明澮, 鄭昌孫, 魚世謙, 沈澮, 李坡, 鄭汝昌, 南孝溫 등을 부관참시에 처하고 그 자제 동족까지 아울러 죄를 주었다.³⁸⁾

그외로 사형당한 사람은 參贊 洪貴達, 朱溪君 沈源 吏曹正郎 李幼寧, 正字 卞亨良, 典翰 李守恭, 司諫 郭宗藩, 獻納 朴漢柱, 司諫 姜伯珍, 應教 崔溥, 弘文 博士 成重淹, 佐郎 李籛, 金宏弼, 申澄, 直提學 沈順門, 大司諫 姜訥, 直提學 金千齡, 副提學 鄭麟仁, 正言 李胄, 輔德 趙之瑞, 承旨 鄭誠謹, 校理 朴閔, 參判 趙偉, 監司 權柱, 正郎 姜謙, 承旨 洪湜, 宦官 金處善, 韓訓, 金同, 李自華, 朴胤, 張順孫 등이 죽음을 당하였으며 수많은 사람이 귀양을 갔다. 이처럼 처음에는 생모 사사사건과 관련하여 살육이 시작된 것이 점차 확대되면서 무오사화관련자를 제처벌하고, 凌上을 하였다거나 궤내간섭이나 세자빈 간택에 거부한 것까지 치죄하였다. 그러므로 피화자의 수나 형벌은 무오사화에 비하여 훨씬 끔직한 최악의 참사였다.

갑자사화는 연산군 생모가 사사된 것이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왕을 중심으로 한 궁중세력과 훈구, 사림과 중심의 府中세력 과의 충돌로 야기된 피비린내 나는 정치적 참극으로 보아오고 있으나, 전례 없는 수 많은 선비들을 살육한 연산군의 잔학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태로 성종조에 양성된 학자들 중 무오사화에서 화를 면한 선비들이 또 다시 수난을 당하여 학계의 참담함이 더 이상 클 수가 없었다. 따라서 당대의 학술문화 사정은 兩大土禍로 인한 학자들의 손실만 감안하더라도 크게 기대할 것이 없으리라 가히 짐작된다.

38) 李相栢 「韓國史(近世前期篇)」(서울: 을유문화사, 1962), 537.

4.2 教育 輕視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로 삼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를 설립하고 학풍을 진작시키는 일을 중히 여기는 것은 군왕의 덕목일 것이다. 조선 초부터 서울에는 成均館과 四學을 설치하고 지방에는 州·府·郡·縣에 鄉校를 설치하여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重視하였다. 그러나 연산군의 치적에서 失政이라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교육을 輕視했다는 점이다.

물론 즉위 초에는 선왕이 실시했던 賜暇讀書制를 계속하여 젊은 학자들을 선발하여 학문연구에 전념토록 하였지만 무오사화이후 이 제도는 중단되어 버렸으며, 여타 교육 장려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탄압하기까지 하였다. 그 사례로서는 성균관을 비롯한 학교의 교육적 기능에 대한 무관심과 興學政策의 부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연산군은 즉위 초 佛事에 대한 성균관 유생들의 비판적인 상소에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는지 성균관에 나아가 유생을 격려하고 학문 토론하는 일이 거의 없었으며, 유생들로 하여금 朝賀·朝參하는 일에 함께 반열에 따르도록 하고, 또 교자를 메게 하거나 왕이 행차시 모두 길 곁에 俯伏하게 하였으며,³⁹⁾ 하지 않은 자가 있으면 大司成까지 문책케 하는 등 학생들이 학문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성균관이 궁과 인접하고 그 위치가 높아 궁내의 모든 행사를 내려다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담을 높이 쌓게 하였고, 성균관 聖井이 궁성과 가깝다하여 다른 곳을 파게하였고 측간도 후원에 가깝다는 이유로 이전하게 하더니 중국에는 성균관을 다른 곳으로 이전토록 하였다. 연산군 재위기간에 신축 이전은 안 되었으나 성균관은 유흥장으로 활용되거나 동물 사육장으로 사용되어⁴⁰⁾ 인재양성을 위한 온전한 교육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宗學의 폐지를 들 수 있다. 종학은 세종때 대군이하 종실의 교육을

39) 「燕山君日記」 권54, 10년 7월 辛丑.

40) 「中宗實錄」 권1, 1년 10월 庚戌.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이후 학생들이 많고 적음에 변화는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연산군 11년(1505) 11월에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종학(宗學)을 세운 것은 종친들로 하여금 임금을 섬기고 어른을 공경하는 길을 알리고자 한 것인데, 不肖한 무리들이 文士들과 교제하면서 하여서는 안 될 일을 하기 좋아하므로 지금 이미 종친들에게 들어가 배우지 말게 하였다. 종학은 쓸데없는 관청이니 혁파하는 것이 어떠한가?”하니 영의정 柳洵, 좌의정 朴崇質, 예조판서 金勳 등이 왕의 분부가 지당하다고 하여 종학을 혁파하기에 이르렀다. 41) 또한 채소전과 園圃를 관리하는 司圃署를 사학 中中學으로 옮겨 놓아 42) 학당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하였으니, 경연의 폐지, 서연의 교육기능 축소 등과 함께 교육경사가 심하여 탄압으로 확대된 결과라 하겠다. 43)

4.3 言論과 諺文의 彈壓

연산군 초기의 정국은 성종조의 신장된 신권과 활성화된 대간 홍문관의 언론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을 띠면서 佛事의 設行, 外戚의 猥濫된 重用과 爵賞, 宰相의 任命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연산군과 간관들의 갈등이 야기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한 예를 들면, 즉위초 성종을 위한 佛事로서 水陸齋를 거행하는 것에 대하여 대간과 홍문관이 반론을 제기하고, 연산군이 세자시 스승이었던 侍講院 輔德 李瑬 등까지 불사를 정지해 줄 것을 간청하였지만 듣지 않았다. 44) 이어서 성균관 유생 趙有亨 등이 재의 실행이 불교를 배척했던 성종의 뜻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여러 차례 상소를 했다. 45) 이에 연산군은 상소문에 凌上하는 내용을 문제 삼아 조유형 등 157명을 의금부에 하옥 국문케 하였는데, 46) 대신들과 대간 홍문

41) 『燕山君日記』 권60, 11년 11월 丙申.

42) 『燕山君日記』 권61, 12년 1월 壬寅.

43) 申千湜, “朝鮮朝 燕山君의 教育彈壓政策과 教育思潮,” 『명지사학』 제7호 (1995), 3-29.

44) 『燕山君日記』 권2, 즉위년 12월 辛巳, 癸未.

45) 『燕山君日記』 권2, 즉위년 12월 甲申. 원년 1월 乙酉, 丙戌.

관에서 선처할 것을 수차례 상소하여 鄭希良, 李穆, 李自華는 외방에 부처하고 조유형 등 21인을 停擧토록한 바 있다.⁴⁷⁾

이처럼 연산군은 초기부터 신료들의 언론에 대하여 긍정적인 시각에서 수용하고 개선하려는 의도보다는 왕권강화차원에서 위를 능멸하는 풍습을 기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왕때 활기를 띠었던 언관의 정치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그 기능을 약화시키고자 하였다. 이후에도 연산군과 대관 홍문관의 대립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무오사화가 발생하였다. 무오사화 이후에도 간관들이 우의정 成俊을 不肖하다고 표현한 것을 凌上한 것이라는 이유로 간관들을 하옥 국문하고 사헌부의 관원을 체직시키는 일까지 벌어졌다.⁴⁸⁾ 정승 및 원로대신들이 언론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건의에 마지못해 석방은 하였지만, 연산군은 이러한 풍조를 짚은 선비가 大臣을 경멸하는 凌上之風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대간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연산군 7년 8월에 유자광이 兼五衛都摠官에 제수되자⁴⁹⁾ 홍문관은 대간과 더불어 그 부당성을 3개월 걸쳐 논박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신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홍문관원을 하옥 국문케 하고 체직시켜 대간들에 이어 홍문관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대처하였다. 갑자사화가 앞에서 언급한 바처럼 폐비 윤씨의 사사와 연루된 신하들을 치죄한 것이지만 일변 연산군은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왕권에 도전하는 신하들의 능상지풍을 없애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갑자사후이후 朝啓 때에는 의정부 6조와 대사헌 대사간만 입시하고 나머지 대간 및 홍문관은 입참하지 말도록 전교하였고 홍문관, 사헌부의 持平, 서간원의 正言 등을 혁파하고, 그 혁파문까지 지어 반포하였다.⁵⁰⁾

이렇듯 간관들의 언론을 약화시키고 탄압하는 한편, 궁 밖에서 일어나는 불평 불만의 언론을 막기 위한 금지조치를 내렸다. 먼저 연산군 10년 5월에 조정사에

46) 『燕山君日記』 권2, 원년 1월 丙午.
 47) 『燕山君日記』 권2, 원년 1월 庚戌.
 48) 『燕山君日記』 권35, 5년 11월 丁丑.
 49) 『燕山君日記』 권41, 7년 8월 己未.
 50) 『燕山君日記』 권57, 11년 1월 己亥.

대하여 비판하는 유생들에 대하여 본인은 물론 부형까지 처벌하고 성균관내 부당한 언론이 나타날 경우에는 관원까지 처벌한다는 전지를 내렸으며, 다음날 또 다시 성균관과 사학의 유생뿐만 아니라 巷里의 아동들이 모여 망령되게 국정을 비난하는 일이 없도록 금지시키고 이를 범하는 자는 그 부형까지 처벌토록 하였으며 더 나아가서는 독서로 交遊하는 것까지 금지한다는 강경책을 발표하였다.⁵¹⁾ 동년 12월에는 儒者 2인이 路傍에서 만나 遊談하는 경우에도 치죄한다고 극단의 조치를 내린바 있으며⁵²⁾ 재위 말년에는 성균관과 사학에 학적을 두지 않은 일반 유생들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출입한 유생과 만난 당사자를 함께 처벌하고 이를 방조한 관원도 杖 100에 외방의 중으로 내 쫓도록 하여 群聚遊談을 철저히 봉쇄하였다.

이와 같이 연산군은 처음 왕권에 도전하는 능상지품의 언론만을 통제하다가 중국에는 모든 언론을 탄압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서, 서로 만나서 독서하고 토론하며 교류하는 학풍이 점차 살아지게 되었던 것이니 학술문화의 발전이 아니라 퇴보시키는 요인을 제공한 것이다.

언론의 억압과 탄압이 강화되면서 재위 말기에 가서는 언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는데, 그 발단은 연산군 10년 갑자사화이후 언문으로 왕의 음란과 포악함을 방으로 써서 붙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연산군은 죄인의 친척이 한 것으로 보고 귀양 간 사람을 잡아다 곤장치고 고문을 하였으며 서울과 시골에 언문을 익히지 못하게 하였고 또 언문구결의 서책을 불태워 버리도록까지 하였다.⁵³⁾ 다만, 한어를 번역한 언문은 금하지 않았고, 약장을 언문으로 번역케 하거나 어전용어를 번역시키고, 역서를 번역케 한 것으로 미루어 일부 사용을 허락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언문의 사용을 금지시켜 우리말의 발전을 저해하였던 것도 연산군 치적의 큰 오점이라 하겠다.

51) 「燕山君日記」 권53, 10년 5월 丁未.

52) 「燕山君日記」 권56, 10년 12월 壬午.

53) 「燕山君日記」 권54, 10년 7월 庚戌.

5. 燕山朝의 書籍編纂 및 刊行

연산군은 재위 12년 동안 많은 학자를 살해하고,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을 경시하고, 언론을 탄압하여 학문풍토를 말살함으로써 학술적 업적이 다른 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조할 것으로 짐작되나 실록에 나타난 기사를 토대로 편찬도서와 간행도서의 실적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5.1 書籍編纂

연산군은 즉위하여 곧 관례에 따라 원년(1495) 4월 魚世謙 등에게 선왕인 『成宗實錄』을 수찬하도록 명하였으며, 이 실록을 수찬하는 과정에서 무오사화가 발생하여 많은 선비들이 화를 당한 후 이듬해 2월 춘추관에서 찬진하였다.⁵⁴⁾

연산군 3년(1497) 11월에는李克均 등이 『慶尙右圖』를 작성하여 올렸으며, 4년 2월에는世祖이하三朝의 『國朝寶鑑』을 찬하도록 명하였다. 이 국조보감은 연산군 6년(1500) 9월 洪貴達 등이 찬진하였다.⁵⁵⁾ 연산군 5년에는 야인의 역사를 『海東諸國記』의 예에 따라李克均에게 찬집하도록 명하였다. 연산군 6년에는 1월에 金自貞 등이 『日用漢語翻譯草』를 찬진하였고,⁵⁶⁾ 2월에는 『君臣名鑑』 찬집토록 하여 7월에 『歷代明鑑』으로 成倪, 洪貴達, 權健 등이 찬진하였고,⁵⁷⁾ 9월에 洪귀달, 권건 등이 『續國朝寶鑑』을 찬진하였으며, 12월에는 『歷代帝王詩文雜著』를 성현 등이 찬진하였다.⁵⁸⁾

연산군 7년(1501) 윤 7월에는 成俊,李克均 등이 『西北諸蕃記』 및 『西北地圖』를 찬진하였고,⁵⁹⁾ 10월에 『東國輿地勝覽』의 교정이 이루어졌다. 연산군 8년

54) 『燕山君日記』 권32, 5년 2월 壬子.

55) 『燕山君日記』 권39, 6년 9월 戊寅.

56) 『燕山君日記』 권36, 6년 정월 壬申.

57) 『燕山君日記』 권38, 6년 7월 庚辰.

58) 『燕山君日記』 권39, 6년 9월 戊寅, 12월 己酉.

59) 『燕山君日記』 권40, 7년 윤7월 甲申.

(1502) 6월에는 李昌臣에게 吏文의 注解 口訣을 하도록 명하였고, 10월에는 李蘭孫이 安民圖를 그려 바쳤으며, 11월에는 吳益念이 修身圖를 그려 올렸다. 연산군 10년(1504) 6월에는 「警臣責工文」을 金勸 등이 奉敎 製進 하였고, 11년(1505) 1월에는 李希輔 등에게 往古의 後宮, 宦官, 忠臣의 事跡을 書啓시키고 또 古詩 중 華麗通暢한 것을 찬집케 하였다. 같은 해 2월에는 曹繼衡이 악장에 구절을 써넣어 제진하였으며, 4월에는 金堉 등에 명하여 滌恨歌의 歌詞를 제진케 하고, 7월에는 왕 즉위 후의 日記를 修撰하도록 명을 내렸다.

연산군 12년(1506) 4월에 「敬誓文」을 찬하였고, 6월에는 언문으로 「御前用語」를 번역 인반케 하였다.

이상 예상한대로 편찬된 서적은 양적으로 극히 저조하였으며, 내용 또한 「國朝寶鑑」, 「歷代明鑑」, 「東國輿地勝覽」의 교정 외에는 별로 중요한 것이 없으며, 「歷代帝王詩文雜著」나 악장, 가사 등을 제진토록 한 것에서 시문에 관심이 많은 연산군의 학문성향을 엿 볼 수 있다.

한편, 도서편찬과 더불어 중국으로부터 도서를 입수한 사례를 적어보면 먼저 중국 사신 편에 기증된 도서로 원년 6월에 「大明一統志」와 「綱目」, 「通鑑」 등이 입수되었으며⁶⁰⁾, 우리 사신이 기증 받아 온 경우로는 8년 3월 정조사로 다녀온 이창신이 「靑囊雜纂」, 「玉音韻海」, 「切韻指南」을 가져온 사례가 있다.⁶¹⁾ 또한 사신 편에 구입해 오라는 경우로는 3년 7월 千秋使 편에 홍문관이 유실한 「吳越春秋」, 「南北史」, 「三國志」 등의 서책을 사오게 한 일과 12년 4월에 사은사로 하여금 「剪燈神話」, 「剪燈餘話」, 「效顰集」, 「嬌紅記」, 「西廂記」 등을 사오게 한 일, 8월에 「聯芳集」, 「麗情集」과 기타 불만한 것을 사오게 한 사례가 있었다⁶²⁾ 이러한 도서 수집은 다른 역조보다 특별한 목적을 갖고 행해진 것이 아니라 의례적으로 행해진 일이라 하겠으나 시문집을 사오게 한 것 역시 연산군의 학문성향과 관련있는 것이라 하겠다.

60) 「燕山君日記」 권6, 1년 6월 庚午.

61) 「燕山君日記」 권43, 8년 3월 丙申.

62) 「燕山君日記」 권62, 12년 4월 壬戌. 8월 甲寅.

5.2 書籍刊行

연산군조의 도서간행은 편찬 실적과 마찬가지로 극히 미비하다. 우선 실록에 나타난 기사 중 연산군이 직접 간행토록 한 것을 적어보면 연산군 2년(1547) 11월에 詩學大成을 인쇄하도록 처음 명하였으며 이듬해 2월 成宗의 遺稿를 인쇄케 하였는데, 승정원의 건의로 간행대신 필사하여 궁중에 소장토록 하였다. 연산군 5년(1550) 9월에는 「東國名家文集」에서 미간된 것을 인쇄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11년(1556) 11월에는 새로 만든 악장 敬淸曲, 赫盤曲, 泰和音을 한자와 언문으로 인쇄케 하고, 12년 6월에 御前用語를 언문으로 인쇄케 한 것이 전부이다. 악장과 어전용어는 흥청과 운평들에게 이용케 할 목적으로 간행한 것이다. 이처럼 연산군이 직접 간행토록 명한 도서들은 시문과 음악에 관심이 컸던 연산군의 학문성향과 관련성이 있다.

실록 기사 중 신하들이 건의하여 간행한 내용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 연산군 1년(1495) 12월 辛亥. 승정원이 「對款議頭」 등의 서적을 간행하여 널리 배포하기를 청하다.
- 연산군 2년(1496) 2월 庚戌. 승지 權景祐가 「四書五經」을 인쇄하여 영안도에 내려주기를 청하다.
- 연산군 5년(1499) 8월 戊申. 左參贊 洪貴達이 「小學」을 간행하여 널리 배포할 것을 청하다.
- 연산군 5년(1499) 10월 庚子. 李世佐가 三國史, 南北史, 隋書, 五代史를 인쇄하기를 청하다.
- 연산군 6년(1450) 1월 丙子. 부제학 洪沔이 「明鑑」을 인쇄하도록 아뢰다.
- 연산군 8년(1452) 2월 戊辰. 대제학 成俔이 「續綱目」을 인쇄할 것을 건의한 바, 「通鑑輯覽」과 함께 인쇄하도록 하다. (「續綱目」은 이듬해 1월 이극균이 수집질 간행할 것을 다시 건의하였다.)
- 연산군 10년(1453) 3월 辛未. 승지 李懿孫이 野人의 世系인 「西國諸藩記」를 간행할 것을 아뢰다.
- 연산군 10년(1453) 윤4월 戊子. 교서관에서 詩帖인 「端午帖子」를 인쇄하여 올리다.

이상으로 실록에 나타난 간인본은 20종 안팎으로 주제는 시문, 역사, 경서, 정치, 법률, 언어 등과 관련된 도서들이다.

그 외 간행도서를 「韓國書誌年表」⁶³⁾에 의하여 적어보면

- 연산군 1년(1495) 「曹洞五位君臣圖序要解」 「十玄談」 「法華經」 「楞嚴經」 「金剛經六祖解」 「心經」 「禪宗永嘉集」 「釋譜詳節」 「金剛經五家解」 「六經合部」 「忠武錄」
- 연산군 2년(1496) 「六祖壇經」 「眞言勸供」 「天地冥陽水陸雜文」 「六祖大師法寶壇經」
- 연산군 3년(1497) 「神仙太乙紫金丹方」 「蒙山和尚六道普說」
- 연산군 4년(1498) 「法界聖風水陸勝會修齋儀軌」
- 연산군 5년(1499) 「救急易解方」 「禪宗永嘉集」 「東國輿地勝覽」
- 연산군 6년(1500) 「妙法蓮華經」 「牧牛子修心訣」 「禪宗唯心訣」 「賢首乘法數」
- 연산군 7년(1501) 「禪宗永嘉集」 「高峰和尚禪要」
- 연산군 8년(1502) 「大華嚴經一乘法界圖」 「五朝名臣言行錄」
- 연산군 9년(1503) 「禮念彌陀道場懺法」 「妊娠撮要方」

이상의 도서 중 연산군 2년에 간행된 「眞言勸供」 「天地冥陽水陸雜文」 「六祖大師法寶壇經」은 목활자인 印經字로 인쇄한 것이다. 인경자는 동년에 성종의 계비 貞顯大妃와 德宗의 비 仁粹大王大妃가 주관하여 연산군이 내려준 內帑으로 만든 목활자이다.⁶⁴⁾ 비록 목활자이나 즉위 초에 성종조의 인쇄술을 계승한 사례라고 하겠다. 그리고 불서가 아닌 「忠武錄」 「救急易解方」 「東國輿地勝覽」 「妊娠撮要方」 등의 관본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찰본으로 불교서적이다. 관에서 간인된 서적은 미비하지만 사찰에서는 왕의 폭정과는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종교 활동에 필요한 불서 간행이 이루어져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6. 結 論

연산군은 부왕이 이루어 놓은 안정되고 풍요로운 정치사회적인 치적과 성숙된 학술문화적 업적을 계승하였으므로, 당대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였지만 재위 12년 동안의 치세는 오히려 서적문화를 퇴보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63) 尹炳泰, 「韓國書誌年表」(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72), 39-43.

64) 千惠鳳, 「韓國書誌學」(서울: 민음사, 2006), 426-429.

그러한 결과는 연산군의 성품과 학술활동 그리고 그의 폭정과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고찰한 내용의 요점을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산군의 성품은 문학적 감성이 풍부하며, 자만심이 강하고 난폭하며 고집스러워 군왕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편이었다. 더욱이 연관과 대신들의 간언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왕권강화에 주력하였으므로 서적문화 발전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둘째, 연산군은 자신의 성품과 자질이 군왕으로서 부족함에도 경연을 통해 학문을 닦고 어진 선비들과 經史를 논하면서 군덕함양하는 일에 불성실하였으므로, 왕의 학술활동은 당대의 文風振作에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 다만, 詩文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작품 활동에 열성을 보인 학문성향은 도서편찬 및 간행에 영향을 미치었다.

셋째, 무오·갑자사화로 인하여 많은 학자와 관료들이 부관참시, 사형 또는 귀양 등의 화를 당하였고 그 여파가 학문 연구에 대해 기피현상까지 나타날 정도였으므로 성종조의 고조된 학풍은 살아지고 서적문화의 퇴보를 가져왔다.

넷째, 연산군은 교육을 경시하고 교육기관을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성균관을 연회장과 동물 사육장으로 사용하였으며, 종실의 교육을 담당했던 중학을 폐쇄하고, 사포서를 중학으로 이전하는가하면 홍문관을 폐쇄하는 등 군왕이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않았음은 당대에 학술문화 발전을 저하시키는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

다섯째, 연산군은 간관과 대신들의 언론을 탄압하였으며 학자들 간에 상호 학문적 교류와 군취유담 등을 엄금하고, 나아가서는 언문의 사용을 금지케 함으로써 학풍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국어 발전을 퇴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섯째, 연산조의 도서편찬은 「國朝寶鑑」, 「歷代明鑑」, 「東國輿地勝覽」의 修正이 주요한 실적으로 인정될 뿐이며, 도서간행은 그 실적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극히 미비하였으나 불서를 간행하기 위해 목활자인 印經字의 제작은 기억할 만한 일이다.

결과적으로 한나라 통치자의 성품과 학문성향 및 정치적 역량은 당대의 서적문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현대에서도 정도 차이는 있을지라도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학문을 중시하고 교육의 가치를 존중하는 통치자가 요구되는 것은 변함없는 일이다.

<참고문헌>

- 姜泰訓. “朝鮮朝 經筵의 教育的 役割.”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1991.
- 宋永日. “朝鮮 成宗朝 經筵進講 研究.”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1998.
- 辛承云. “成宗朝의 文士養成과 文集編刊”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4.
- 申千湜. “朝鮮朝 燕山君의 教育彈壓政策과 教育思潮.” 『명지사학』 7(1995). 3-28
- 尹炳泰. 『韓國書誌年表』.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72.
- 李肯翊. 『燃藜室記述』. 국역본.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66.
- 李相栢. 『韓國史(近世前期篇)』. 서울: 을유문화사 1962.
- 李崇寧. “燕山君의 詩想의 考察.” 『東方學志』 12(1971. 3). 247-265.
- 李恩淑. “甲子士禍의 原因에 대한 일고찰.”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대학원, 2001.
- 李昌旻. “成宗時代 出版活動에 관한 考察.” 『出版雜誌研究』 6(1998). 21-44.
- 朝鮮王朝實錄 (成宗實錄). 영인본.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68-1970.
- 朝鮮王朝實錄 (燕山君日記). 영인본.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68-1970.
- 朝鮮王朝實錄 (中宗實錄). 영인본.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68-1970.
- 千惠鳳. 『韓國書誌學』. 서울: 민음사, 2006.
- 崔異敦. “16세기 士林의 進出과 政治構造의 變動過程.”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1.
- 한영우. 『우리역사』. 서울: 경세원, 2002.